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권역별 메가시티, 균형발전 의제로”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국제·지방세 구조개선 등
8대 공동협력 성명 채택
청년정책 주제 간담회 진행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 등을 주제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맞춤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하는 대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동사업 국비 지원, ▲국제·지방세 구조 개선, ▲수

소산업 규제 해소, ▲약항직업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지원 신설 등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북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주~김천 철도 건설,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 ▲서해안 철도 건설, ▲남부내륙 철도 건설, ▲경전선 전철화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현풍C~남천간 고속도로 건설,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협력회의에 이어, 8개 시·도 참관대표 28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등 민생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협의의 자리로 만들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국가연구개발 R&D 수주를 통해 지원받은 연구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북대는 대학 연구 역량을 파악하고 연구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R&D 사업 수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R&D사업 수주액이 1,774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주액은 2019년 1,451억원에 비해 22.3%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간접비 수입도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비 1억 미만의 과제 수가 전체 71.3%로 소규모 개인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연구비 5억 이상의 대형 과제도 전년 대비 26.8%

전북대, 연구 중심대학 ‘순항’

작년 R&D 사업 수주액 1774억원 전년보다 22.3%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R&D 사업이 40.2%로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부 43.6%, 산업통상자원부 39.9%, 민간연구용역 16.1% 순으로 상승했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이 691억 8,000만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175억 7,000만원, 자연과학대학이 133억 8,000만원 순으로 연구비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연령에서는 50대, 직급에

서는 교수의 연구과제 수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증가는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전북대의 학계 및 기업계의 평판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최근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가능케 하는 2021 Leiden Ranking 평가에서 학문분야별 인용상위 10% 이내의 논문에서 거점국립대 1위를 차지하며 연구 경쟁력이 강한 대학임을 과시한 바 있다.

또한 9일 발표된 QS 세계대학평가에서도 거점국립대 2위에 올랐다. 전북대의 외부 연구비 수주액의 지속 상승은 차별화된 연구혁신사업 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연구처는 연구중심대학의 기반을 닦기 위해 특성화캠퍼스와 의대 등에 산학협력단 분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연구지원 행정을 구현했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 스타교수를 발굴·육성하고 질 좋은 논문에 대해 포상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기반 조성사업, 예술분야에는 예술분야 학술연구발표지원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14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진행된 제63회 전주 시민의 날 및 '한국의 꽃심 전주 선포 5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가운데)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주정신 선언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라감영에서 ‘꽃심’을 되새기다

동학농민군이 모두가 평등한 ‘대동’ 세상을 실현하려 했던 소리꾼들이 경연을 펼쳐며 진정한 ‘풍류’가 무엇인지 보여줬던 전라감영에서 대동, 풍류, 울금, 창신 등 전주 정신 ‘꽃심’을 되새기고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국의 꽃심’ 선포 5주년 기념식
전주정신 공유 위해
지역 인재, 선언문 낭독
전주시민대상 7명
모범시민상 5명 수상

도 진행됐다. 전주 시민대상에는 ▲효행대상 김동우(48) ▲교육학술대상 김명영(78, 여) ▲문화예술대상 심재기(70) ▲산업기술포럼 조운관(58) ▲사회봉사대상 황승일(60) ▲체육대상 박현조(74) ▲복지대상 이병관(66) 등 7명이 수상했다. 모범시민상으로는 ▲김남욱(삼천동) ▲김준섭(인후3동) ▲유두석(서서학동) ▲지은숙(중화산1동) ▲채규철(노송동) 등 5명이 선정됐다. 또 전주정신 확산 유공자로 선정된 김귀경(47, 여), 심해숙(66, 여), 신정래(57, 여) 등 3명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깊이 없이 변화하지만 본질은 끝까지 지켜내는 꽃심 있는 도시, 자존심을 잃지 않고 전주다움으로 세계의 승부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전주사람입니다” 이 한 마디가 자방이 되는 도시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단우날 선포한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은 전주사람들이 품고 있는 공통된 정신인 대동·풍류·울금·창신 등 4개의 정신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신이다. 꽃심은 최명희 작가가 작품 ‘혼불’에서 쓴 것처럼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으로 씩씩히 뛰어나는 강인한 힘을 의미한다. /김윤상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는 전주 시민과 함께 합니다.

http://council.jeonju.go.kr